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The husbands' participation in the household labor

영동전문대학교
전임강사 조미환
한양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임정빈

Young Dong Junior College
Full time Instructor : Cho, Mee-Whan
Dept. of Consumer & Family, Hanyang University
Prof. : Im, Jeong-B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rban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and to predict the amount of their participation in i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usbands participate in household labor(i.e., the housework and the child care) on the average for 114 minutes a weekday and for 240 minutes a holiday. They participate most in the child care among all the household tasks. The employed wives' husbands participate more in the housework than nonemployed wives' husbands.
2. Husbands' paid work time is the strongest predictor of their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on weekdays, but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is the strongest one on holidays to both employed wives' and nonemployed wives'

*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husbands.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fo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1. 서론

가정은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정내에서 가족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노동이 가사노동이다.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가족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가족공동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결합되면서 남성은 가정 밖에서 임금을 받는 직업역할을,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역할을 담당하는 성별 역할분화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성별 역할분화는 지금까지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초기산업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별 역할분화의 관념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Adams(1980)는 사회변화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이 전통적인 성에 의한 역할분화에서 모든 역할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평등주의적 역할공유로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Toffler(1980)도 미래사회의 역할공유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는 제2의 물결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남성은 생산자역할, 여성은 소비자역할로 역할이 분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3의 물결이 밀려드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활양식이 출현하고 가정에서도 남녀간에 역할공유가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더욱 평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직업영역에서의 남녀간 역할공유는 산업화의 발달,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래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정착될 것을 전망하게 한다(옥선화, 정민자, 1993).

그런데 직장에서의 남녀간 역할공유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역할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취업 기혼여성은 과중한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이 취업한 가정의 경우는 취업기혼여성의 이중역할 완화라는 측면에서 기혼남성의 가사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가 학문적,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수행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이후 연구목적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경우는 부부와 기혼여성 외에도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경우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기혼남성의 가사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개인적, 가족적, 취업관련요인은 가사참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연구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정도와 참여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가사노동분야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와 방향을 예측하여 미래가정의 부부가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균형있는 가정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가사노동의 개념

가정학자들이 가사노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 가정관리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가사노동은 '가계의 유지(housekeeping)와 관리 및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가사노동은 Reid(1934)에 의해 "가계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개념화되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노동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Walker와 Woods(1976)는 가정생산과 가사노동을 동일시하면서 가사노동이란 '가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별가계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이들의 정의를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특성도 포함시켜 가족구성원의 공동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파악하고 있다(임정빈, 1984; 문숙재, 채옥희, 1986; 문숙재, 1988).

이상의 가사노동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면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창출하며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모든 육체적·정신적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는 Oakley(1974)가 런던의 주부들에게 남편이 가사노동을 "돕는지"의 여부를 물었던 1970년대 초 이후 학문적 관심과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Coleman, 1988).

먼저 국외연구를 중심으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

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가사노동시간의 범위 및 변화추세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Rexroat와 Shehan(1987)의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은 주당 5.2시간 가사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Sanik(1990)는 주당 28시간이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연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추세를 보면 Coverman과 Sheley(1986)는 1965년과 1975년간의 시간변화를 분석한 결과 임금노동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시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Pleck(1985)과 Juster(1985)는 가정에서의 가사분담은 더 평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의 변화에 초점을 둔 최근의 연구는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Zick와 McCullough(1991)은 Utah주의 두 자녀를 둔 정상가족의 시간사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77~78년, 1987~88년간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당 약 30분 감소한 반면 남성은 평균적으로 같은 양이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Gershuny와 Robinson(1988)도 1975~85년간 기혼여성의 하루당 가사노동시간은 약 1시간정도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는 하루당 약 30분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그동안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7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결과도 연구에 따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의 범위가 매우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윤복자(1975)는 기혼남성은 가사노동에 하루당 약 40분정도 참여한다고 보고한 반면 박주희(1993)는 약 3시간 47분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¹⁾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추세를 보면, 1970년대에 행해진 연구에서는 남성은 가사노동에 하루당 약 40분정도를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복자, 1975).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의 연구에서는 약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주당 24.3시간으로 나타난 결과를 연구자가 하루당으로 계산함.

(임정빈, 1981; 이정수, 1983; 문숙재, 1991; 박민자, 1992). 이러한 결과에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80년대·90년대에는 1970년대보다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구지역이 국내외에 상관없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문적 관심과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 학문영역 중에서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가사참여 영향요인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가족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설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적용되어 온 몇 가지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역할관념 가설(The Sex-Role Ideology Perspective)

이 가설은 개인의 가치관 또는 관념에 관한 면을 중시하여 남녀는 자신의 성에 적합한 가치와 행동을 지니도록 학습받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내면화된다고 본다. 또한 전통적 가치와 태도를 지닌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가정을 위한 일차적인 소득획득자의 역할을 맡으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적인 의무에 가사노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한다. 많은 연구가 주로 성역할태도를 측정지표로 이용하여 이 가설의 영향력을 검증해 왔다. Abdel-Ghany와 Nickols(1983)는 취업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을 연구한 결과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분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도 남편 혹은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큰 대적일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어 대체로 성역할 관념가설을 지지하고 있다(Huber & Sptze, 1983; Bird et al., 1984;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박민자, 1992). 그러나 Coverman(1985),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은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대적 자원가설(The Relative Resources Perspective)

이 가설은 Blood와 Wolfe(1960)가 주장한 자원이론을 가사노동 분담에 적용한 것이다. 자원이론에 의하면 각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가져오는 '자원'은 그 사람의 역할책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원이 역할책임을 협상하기 위한 권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Hiller(1984)는 부부 중 사회경제적 또는 물질적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지니므로 가사노동분담 결정과정에서 권력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따라서 그 사람의 가사노동참여는 감소한다고 보았다. Hood(1983)도 가사노동분담에 부부간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권력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권력의 척도로는 주로 교육, 소득, 직업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Hiller, 1984). 먼저 교육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편의 경우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nsen, 1982; Berardo et al., 1987; Hardesty & Bokemeier, 1989; Padgett, 1991). 그러나 부인의 교육수준은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의 관계를 갖거나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ricksen, Yancey, & Ericksen, 1979; Berardo et al., 1987; Padgett, 1991; 박민자, 1992; 박주희, 1993).

소득에 대한 결과를 보면 많은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ricksen et al., 1979; Maret & Finlay, 1984; Blair & Lichter, 1991; Padgett, 1991). 그러나 Coverman(1985)과 박주희(1992)는 부부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자원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amo(1988)는 교육과 소득 등을 이용한 객관적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순종 권력과 의사결정 권력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주관적 권력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우자를 순종시키는 남편의 권력이 클수록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요구·반응가능성 가설(The Demand/Response Capability Perspective)

이 가설은 부인의 취업여부, 직업노동시간의 제약 정도 및 자녀와 관련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가사노동시간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즉 직업노동시간은 가족내 역할수행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배우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가정한다(Blood & Wolfe, 1960; Condran & Bode, 1982; Kamo, 1988; Blair & Lichter, 1991).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노동시간이 길면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줄어드는 직선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론에 일치하고 있다(Coverman, 1985; Shelton, 1990; Padgett, 1991; Coltrane & Ishii-Kuntz, 1992; 박민자, 1992; 박주희, 1993).

그러나 부인의 취업상태나 취업부인의 취업시간이 남편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부인의 취업과 취업부인의 근로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ksen et al., 1979; Huber & Spitze, 1983; Nichols & Mitzen, 1982; Bird et al., 1984; Spitze, 1986; Barnett & Baruch, 1987; Ross, 1987). 반면에 부인의 취업상태 혹은 취업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Berardo, Shehan, & Leslie, 1987; Rexroat & Shehan, 1987; Shelton, 1990).

한편 Coverman(1985)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학령기 이전, 학령기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Blair와 Lichter(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민자(1992), 박주희(1993)도 같은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요인들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사조력자 유무가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가사노동 수행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가사조력자의 지원은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송혜림(1988)은 가정고용인이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연주(1984)의 연구에서도 취업주부의 수입이 많을수록 고용인의 가사노동수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 본 이론적 관점에 기초하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특정가설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설명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성역할관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부인취업의 중요성인지 요인을 포함시킨다.

상대적 자원가설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부부간의 소득수준의 차이, 부부권력인지를 설정한다.

요구·반응가능설 가설의 지표로는 취업시간, 근무용통성, 막내자녀연령과 가사조력자 유무를 포함시켜 분석한다.

각 이론적 관점의 상대적 강도를 검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분석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기혼남성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참여하는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할 경우 각각의 요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가사영역을 일반가사와 자녀양육 영역으로 나누어 가사노동참여를 분석한다. 자녀양육활동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일 뿐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사와 자녀양육을 모두 조사한 후 분석시에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가사참여에 대한 분석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부인 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부인취업여부에 따라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를 요구하는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이들의 이중역할 완화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가사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모형은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 = \beta_0 + \sum_{j=1}^n \beta_j G_j + \sum_{k=1}^n \beta_k R_k + \sum_{l=1}^n \beta_l D_l + \epsilon$$

Y는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G_j 는 성역할관념의 j번째 지표,
 R_k 는 상대적 자원의 k번째 지표,
 D_l 는 요구·반응성의 l번째 지표,
 $\beta_j, \beta_k, \beta_l$ 는 관련회귀계수,
 β_0 는 상수, ϵ 는 오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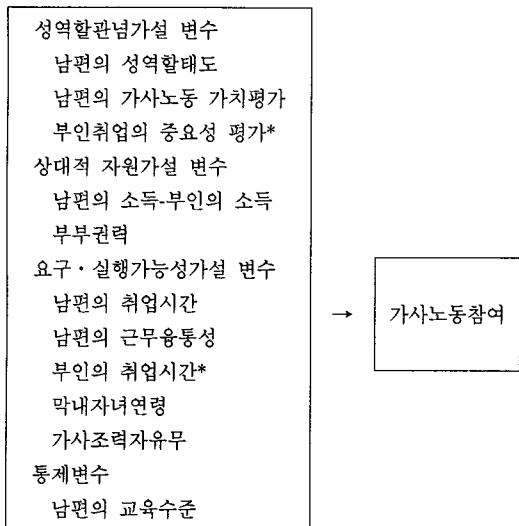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부인취업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인비취업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



* 표한 변수는 부인취업남편의 경우에만 분석함.

〈그림 1〉 가사노동참여의 연구모형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조사를 실시하며 질문지조사의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문제의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일부 면접을 병행하고자 한다.³⁾

양적인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가사노동시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가설과 관련된 변수 및 사회인구

2)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교육을 특장가설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세 가지 가설의 영향력을 검증할 때 통제변수로 간주하여 포함시키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교육과 소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상대적 자원가설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은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사결정 권력의 좋은 척도가 아니라는 점이다(Ross, 1987). 마지막으로, 교육은 다른 가설을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학회지에는 지면관계상 면접에 대한 결과분석은 생략하므로 더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학적 변수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은 질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본 연구 지도 위원회 위원 5인으로부터 검증받았으며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에 의하여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1) 가사노동참여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방법을 이용하여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시간측정방법은 제시된 각 가사내용에 대하여 평일 중 하루와 휴일 하루에 수행한 시간으로 산출하였다.

가사내용의 분류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구매, 관리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우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1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표 1)).

(2)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77$ 이었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86$ 이었다. 부인취업의 중요성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3) 상대적 자원가설

부부의 소득차이는 Ross(1987)의 연구를 토대로 부부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조사한 다음 남편의 소득에서 부인의 소득을 공제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부인이 비취업인 경우는 부인의 소득은 '0'의 값을 주었다. 부부권력인지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76$ 이었다.

(4) 요구·반응가능설 가설

기혼남성 및 취업한 부인의취업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하루당 취업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남편의 근무용통성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무용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74$ 이었다.

2) 표집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1996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에 걸쳐 서울 지역에서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막내자녀연령이 18세 이하인 유자녀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하였다.⁴⁾ 질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43부(약 91%)를 회수하였으며 그중 기재내

〈표 1〉 가사내용목록

생활영역	내용	
일반가사	식생활	식사준비·상차리기·도시락준비, 설거지
	의생활	세탁·빨래정리, 다림질·옷손질 및 수선, 이불퍼기·개키기
	주생활	청소, 욕실·베란다·뜰청소, 간단한 집안수리, 정원·화초가꾸기, 자동차세차·수리하기
	구매	일상적 시장보기, 특별쇼핑
	관리	가정의 일상적 문제와 경제문제의 계획·관리·의논·수행
자녀양육	신체적 돌보기(깨우기, 씻기기, 옷갈아입히기, 밥먹이기, 재우기, 아플때 돌보기), 등·하교시키기*, 숙제봐주기·이야기나누기, 책읽여주기·놀이주기·그림그리기, 놀이터에서 놀기·야외나가기#	

#한 가사내용은 평일에는 제외됨

*한 가사내용은 휴일에는 제외됨

4) 연구대상을 한정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이트칼라집단과 블루칼라집단은 생활양식, 가치관, 행동 등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질적 특성을 갖는 두 집단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할 경우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이

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412부(68.7%)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률, 평균,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표 2>

2.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

기혼남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에는 가사노동에 평균 1시간 54분 참여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46분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이 주생활에 약 25분, 의생활과 관리에 각각 약 12분, 구매에 약 11분의 순이며 식생활에 약 9분으로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다. 자녀양육을 제외한 일반가사에는 1시간 8분, 자녀양육에는 46분 참여함으로써 두 영역에 6:4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휴일에는 전체적으로 약 4시간 참여하고 있고, 영역별로는 자녀양육에 1시간 37분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구매와 주생활에 약 45분, 식생활에 약 19분, 의생활에 약 18분의 순이며 관리영역에는 약 15분으로 가장 적게 참여하고 있다. 이로 미

루어 기혼남성은 평일과 휴일 모두 6개 가사노동영역 중에서 자녀양육에 가장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가사에는 2시간 23분, 자녀양육에는 약 1시간 37분 참여함으로써 두 영역의 참여비율은 평일과 같이 6:4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취업여부에 따른 가사참여정도를 <표 5>에서 보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양육참여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일반가사 참여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부인남편은 비취업부인남편보다 평일의 일반가사에 약 2배 정도 많이 참여하고 휴일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요일에 따라서는 부인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과 일반가사 모두 휴일에는 평일보다 많이 참여하며 평일과 휴일간의 차이는 비취업부인남편이 취업부인남편보다 더 크다.

3. 부인취업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가사참여결정요인이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시에는 세 가지 가설을 각 가설군별로 투입하여 각 가설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방법과 세 가지 가설을 일괄투입하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영향력과 전체적인 설명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세 가지 가설의 지표로 포함되는 변수들 외에 교육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⁵⁾

혼합됨으로써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집단의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없거나 막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양육에 소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가사노동시간 및 각 가사영역의 가사참여시간은 자녀양육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집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 연령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유자녀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5) 중다회귀분석은 분석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후 특정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도록 해 준다. 만약 종속변수에 미치는 특정독립변수(A)의 효과에 다른 독립변수(B)의 효과가 내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변수 B를 분석에 포함시켜 통제시키지 않으면 특정독립변수 A의 순수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2)

변 수	집 단	빈도	백분율
남편 연령	30세 미만	21	5.1
	30-40세 미만	239	58.0
	40세 이상	152	35.0
부인 연령	30세 미만	71	17.2
	30-40세 미만	257	62.4
	40세 이상	84	20.4
남편 교육정도	고졸	59	14.3
	대졸 이상	353	85.7
부인의 교육정도	고졸	135	32.7
	대졸 이상	277	67.2
남편의 직업	경영·관리직	44	10.7
	사무직	368	89.3
부인의 직업	주부	255	61.9
	사무직	115	27.9
	기타	42	10.2
남편의 소득	150만원미만	75	18.2
	150만원-200만원미만	111	26.9
	200만원-300만원미만	154	37.4
	300만원이상	72	17.5
취업부인의 소득	100만원미만	25	15.9
	100만원-150만원미만	59	37.6
	150만원이상	73	46.5
결혼지속년수	5년이하	133	32.3
	6년-10년	132	32.0
	11-15년	93	22.6
	15년이상	54	13.1
자녀수	1명	140	34.0
	2명	248	60.2
	3명이상	24	5.9
막내자녀 연령	3세이하	132	32.0
	4-6세	122	29.6
	7세-12세	106	25.7
	13세이상	52	12.6
남편의 취업시간	10시간미만	104	25.2
	10-12시간미만	148	35.9
	12시간이상	160	38.8
취업부인의 취업시간	10시간미만	89	56.7
	10-12시간미만	53	33.8
	12시간이상	15	9.6
가사조력자	고용인	22	5.3
	친인척	74	18.0
	없음	316	76.7
가사조력자의 조력영역	자녀양육영역	16	20.0
	기타영역	39	48.8
	자녀+기타영역	25	31.3

〈표 3〉 심리적 변수의 일반적 경향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태도	3.28	0.64
가사노동가치평가	3.38	0.60
부부권력	3.23	0.57
근무응통성	2.84	0.73
취업부인의 취업중요성	3.41	0.74

〈표 5〉 부인취업여부에 따른 가사참여정도

	취업집단		전업집단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자녀양육	50.23	99.54	43.39	95.44
일반가사	91.18	171.26	54.47	125.58
전 체	141.30	270.80	97.97	221.01

〈표 4〉 기혼남성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분)

과 제	평일	휴일
식생활관련	9.10	18.79
식사준비·상차리기·도시락준비	4.50	10.23
설거지	4.60	8.57
의생활관련	11.67	18.33
세탁·빨래정리	4.70	7.16
다림질·옷손질 및 수선	2.21	4.02
이불펴기·개키기	4.76	7.15
주생활관련	24.58	45.29
청소 및 걸레질	6.44	11.87
욕실·베란다·현관·뜰청소	1.88	4.46
간단한 집안수리	6.00	9.02
정원·화초가꾸기	1.95	4.16
자동차세차·수리	8.32	15.78
구매	10.88	45.38
일상적 시장보기	5.39	17.62
특별쇼핑하기	5.49	27.75
관리	11.87	14.75
가정의 일상적 문제 계획·관리·의논·수행	11.87	14.75
자녀양육	46.00	96.96
신체적돌보기	18.38	25.38
숙제봐주기·이야기나누기	12.75	15.22
책읽어주기·놀이주기·그림그리기등	12.14	26.74
등·하교시켜주기	2.73	
놀이터에서 놀기·야외나가기		29.63
일반가사과제(자녀양육제외)	68.10	142.54
전체(분)	114.10	239.50
표준편차(분)	80.21	80.21
범위(분)	0-360	0-900

한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연령과 막내자녀 연령이 부인취업집단과 부인비취업집단 모두에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여(각각 $r=.82$, $r=.84$) 기혼남성의 연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자기회귀현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⁶⁾

가사조력자유무는 가변수로서 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1'의 값을, 없는 경우는 '0'의 값을 주었고 중다회귀분석시에 변수투입은 Enter방식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전체가사노동참여 결정요인

세 가지 가설의 지표로 선정된 10개 변수가 기혼남성의 평일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취업부인남편의 평일가사노동참여에는 기혼남성의 취업시간($\beta=-.33$), 막내자녀연령($\beta=-.19$), 성역할태도($\beta=.17$), 부부권력($\beta=.1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성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고,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부부권력을 부인보다 크게 인지할수록 많이 참여한다. 이는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주관적 요인도 평일 가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회귀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은 이 분산의 33%를 설명하고 있다.

<표 6> 취업부인남편의 전체가사노동참여 결정요인

가설	변인	평일 전체가사노동참여		휴일 전체가사노동참여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25.47	.17*	11.43	.04
	가사노동가치평가	12.06	.09	35.66	.13
	부인취업중요성	16.21	.12	28.67	.11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1	-.09	.42	.19*
	부부권력	25.37	.16*	21.79	.07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23	-.33***	.09	.07
	남편근무용통성	3.76	.03	-12.78	-.06
	부인취업시간	.01	.03	-.05	.15
	막내자녀연령	- 3.41	-.19**	-6.47	-.19*
	가사조력자유무	-18.60	-.11	27.44	.08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5.34	.13	8.66	.11
상수		-68.07		-197.15	
R ²		.33		.12	
F값		6.44***		2.30*	

* P<.05 ** P<.01 *** P<.001

6) 자기회귀현상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회귀식의 d값이 d통계량의 영역 중에서 $d_1 \sim 4d_1$ 에 속해야 하는데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5% 유의수준에서 1.78이상에서 2.10사이이다. 분석결과 모든 회귀식의 d값이 이 수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의 가사노동참여에는 막내자녀연령($\beta=-.19$)과 부부간 소득차이($\beta=.19$)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소득이 부인의 소득보다 많을수록 가사에 많이 참여하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는 이 분산의 12%를 설명하고 있다.

2) 일반가사참여 결정요인

평일의 일반가사참여에는 <표 7>에서와 같이 기혼남성의 취업시간($\beta=-.28$), 성역할태도($\beta=.19$), 부부권력($\beta=.16$), 가사조력자유무($\beta=-.15$)가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적게 참여하고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부부권력을 크게 인지할수록,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에 많이 참여하며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가사조력자가 없는 경우에 많이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문화에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 가사조력자는 노동적 성격이 강한 일반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휴일의 경우 일반가사참여에 어떤 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입된 변수는 이 분산의 7%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휴일은 평일처럼 부인취업상황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자녀양육참여의 결정요인

평일의 자녀양육참여에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내자녀연령($\beta=-.30$), 기혼남성의 취업시간($\beta=-.25$)이 영향을 미친다.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참여하고 자신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적게 참

<표 7> 취업부인남편의 일반가사참여 결정요인

가설		평일 일반가사참여		휴일 일반가사참여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20.35	.19*	7.29	.03
	가사노동가치평가	4.92	.05	20.35	.10
	부인취업중요성	5.85	.06	22.06	.11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7	-.09	.25	.16
	부부권력	17.85	.16*	.73	.01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14	-.28***	.07	.07
	남편근무용통성	3.93	.05	-8.74	-.06
	부인취업시간	.01	.05	-.02	-.11
	막내자녀연령	-.51	-.04	-.24	-.01
	가사조력자유무	-18.50	-.15*	5.69	.02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2.32	.08	5.04	.09
상수		-24.68		-114.66	
R ²		.23		.07	
F값		3.93***		1.01	

* P<.05 *** P<.001

〈표 8〉 취업부인남편의 자녀양육참여 결정요인

가설	변인	평일 자녀양육참여		휴일 자녀양육참여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5.12	.06	4.14	.02
	가사노동가치평가	7.14	.09	15.30	.10
	부인취업중요성	10.36	.14	6.61	.04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6	.09	.16	.12
	부부권력	7.52	.09	21.06	.12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1.0	-.25***	.02	.02
	남편근무용통성	-1.6	-.01	-4.04	-.03
	부인취업시간	-.01	-.02	-.02	-.13
	막내자녀연령	-2.90	-.30***	-6.23	-.30***
	가사조력자유무	-1.00	-.01	21.75	.11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3.02	.14	3.61	.08
상수		-25.96		-82.50	
R ²		.27		.18	
F값		4.73***		2.72**	

** P<.01 *** P<.001

여하며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27%를 설명하고 있다.

휴일의 참여에는 막내자녀연령($\beta=-.30$)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4. 부인비취업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1) 전체가사노동참여 결정요인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 가사노동참여에 취업시간($\beta=-.18$)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8%를 설명하고 있다. 기혼남성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고 있다.

휴일의 가사참여에는 막내자녀연령($\beta=-.17$), 성역할태도($\beta=.14$)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연령이 적을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적일수록 휴일의 가사에 많이 참여하고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11%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취업부인남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취업부인남편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성역할태도가 비취업부인남편의 휴일의 참여도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9〉 비취업부인남편의 전체가사노동참여 결정요인

		평일 전체가사노동참여		휴일 전체가사노동참여	
가설	변인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11.66	.10	35.01	.14*
	가사노동가치평가	2.48	.02	17.04	.06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09	-0.10	-0.19	-0.10
	부부권력	7.42	.06	-32.02	-0.11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0.09	-.14*	.06	.04
	남편근무용통성	12.10	.12	-3.69	-.02
	막내자녀연령	-1.38	-0.09	-5.82	-.17*
	가사조력자유무	-9.75	-.04	-41.57	-.08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3.28	.10	1.37	.02
상수		27.63		185.99	
R ²		.08		.11	
F값		2.28*		3.40***	

* P<.05 *** P<.001

2) 일반가사참여 결정요인

평일의 일반가사참여에는 기혼남성의 취업시간 ($\beta=-.15$), 막내자녀연령($\beta=-.15$)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10〉). 자신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적게 참여하며, 막내자녀연령이 많을수록 많이 참여하고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7%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휴일의 참여도에는 성역할태도($\beta=.1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역할태도가 평등주의 적일수록 일반가사에 많이 참여하며 투입된 변수는 이 분산의 3%만을 설명함으로써 설명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

3) 자녀양육참여 결정요인

평일의 자녀양육참여에는 〈표 11〉에서와 같이 막내자녀연령($\beta=-.32$), 기혼남성의 근무용통성($\beta=.14$)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자신의 근무용통성이 클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고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15%를 설명하고 있다.

평일의 일반가사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자신의 취업시간은 자녀양육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와 자신의 근무용통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기혼남성은 자녀양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휴일의 참여에는 막내자녀연령($\beta=-.28$), 부부권력

〈표 10〉 비취업부인남편의 일반가사참여 결정요인

가설	변인	평일 일반가사참여		휴일 일반가사참여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7.27	.09	25.29	.15*
	가사노동가치평가	3.44	.04	-.86	-.01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4	-.07	-.10	-.08
	부부권력	3.83	.05	-2.07	-.01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06	-.15*	.01	.01
	남편근무용통성	3.02	.04	-1.65	-.01
	막내자녀연령	1.62	.15*	.42	.02
	가사조력자유무	-5.56	-.04	-17.43	-.06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1.79	.08	.48	.01
	상수	12.03		68.05	
	R ²	.07		.03	
	F값	2.06*		.92	

* P<.05

〈표 11〉 비취업부인남편의 자녀양육참여 결정요인

가설	변인	평일 자녀양육참여		휴일 자녀양육참여	
		b	β	b	β
성역할관념가설	성역할태도	4.38	.06	9.72	.06
	가사노동가치평가	-.95	-.01	17.90	.11
상대적자원가설	부부간소득차이	-.05	-.08	-.09	-.07
	부부권력	3.59	.05	-29.95	-.17**
수요·반응가능성가설	남편취업시간	-.02	-.06	.05	.06
	남편근무용통성	9.08	.14*	-2.04	-.01
	막내자녀연령	-3.01	-.32***	-6.24	-.28***
	가사조력자유무	-4.19	-.03	-24.14	-.08
통제변수	남편교육수준	1.48	.07	.89	.02
	상수	15.59		117.93	
	R ²	.15		.18	
	F값	4.78***		5.66***	

* P<.05 ** P<.01 *** P<.001

(β = -.17)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18%를 설명하고 있다.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부부권력을 부인보다 적게 인지할수록 많이

참여하고 있다. 주관적 부부권력의 결과는 부부권력을 부인보다 크게 인지할수록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취업부인의 남편의 결과와는 반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석할 수 있다. 부인이 취업한 남성은 부인취업이라는 상황적 요구와 부인도 소득을 획득하여 가계에 기여하므로 자신도 가정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공평함에 대한 의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부권력이 자신이 가사에 적게 참여하기 위한 자원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비취업부인 남편의 경우에는 주관적 부부권력이 자원으로 행사되어 배우자보다 부부권력이 적다고 인지할수록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막내자녀연령이 18세 이하인 유자녀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사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결정요인은 어떤 것이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남성은 평일과 휴일 모두 자녀양육에 비교적 많이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부인남편은 비취업부인남편보다 일반가사에 보다 많이 참여함으로써 부인의 이중역할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혼남성의 평일의 가사참여에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취업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 휴일의 참여에는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취업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참여함으로써 평일과 휴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취업부인남편의 경우에는 평일의 참여에,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에는 휴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요인이 기혼남성의 가사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업부인남편은 평일의 일반가사참여에 자신의 취업시간, 성역할태도, 부부권력, 가사조력자유

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나 휴일에는 아무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취업 남편은 평일에는 부인의 취업이란 상황을 현실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사조력자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인이 취업한 가정의 경우 가사조력자가 가사노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취업부인남편은 휴일에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가 노동적인 성격이 강한 일반가사참여에 참여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평일과 휴일의 자녀양육참여에 막내자녀연령이 적을수록 많이 참여함으로써 어린 자녀의 존재는 이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구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취업부인남편은 평일의 참여에 자신의 근무용통성도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취업부인남편의 경우 남편의 취업시간은 가사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취업시간이 길수록 평일의 일반가사와 자녀양육에 적게 참여하지만 부인의 취업시간은 이들의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인의 취업시간이 길 경우에 남편이 가사에 참여해 주어야 취업부인의 과중한 역할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책임의 대부분을 여전히 부인이 담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기혼남성의 가사참여에는 성역할관념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수요·반응가능성 가설의 세 가지 가설 모두가 설득력을 지님으로써 기혼남성의 가사참여는 다중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세 가지 가설 중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수요·반응가능성 가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을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평일과 휴일, 일반가사와 자녀 양육 영역에 따라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가사노동참여 연구시에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가치평가와 부인취업중요성 인식을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이 요인들은 기혼남성의 가사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기혼남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정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부부 및 비취업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절대적인 참여정도뿐 아니라 상대적인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성희(1989).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문숙재, 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50.
- 3) 박민지(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4) 박성연(1985). "아버지역할에 대한 재고". 이화여대 가정대 55주년 기념교수논문집. 이화여대 출판부.
- 5)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유재천 역(1981). *제3의 물결*. A. Toffler저. 서울: 문화서적.
- 7) 이기영, 김의숙, 서창원, 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8) 이영미(1991).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연구* 6.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소.
- 9) Abdel-Ghany, M., & Nickols, S.Y.(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59-167.
- 10) Barnett, G.K., & Baruch, R.C.(1986). "Consequenc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 Parents' role strai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983-992.
- 11) Barnett, R.C., & Baruch, 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12) Beer, W.R.(1983). *Househusbands-Men and housework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 : Bergin Pub.
- 13) Blair, S.L.,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14)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15) Geobel. K.P., & Hennon, C.B(1984). "Husband-wife division of labor and quality of family lif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61-72.
- 16) Hansen L.E.(1982). "Husbands' contributions to household work".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 17) Hardesty, C., & Bokemeier, J.(1989). "Finding time and making do :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in nonmetropolitan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253-267.
- 18) Huh Jeong, Gyeongok(1993). "Fathers' time allocation in child care across family type" Ph. 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19)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20) Padgett, D.L.(1991).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An update". Ph. D. Washington University.
- 21) Pleck, J.H.(1979). "Men's family work : Three perspectives and some new data". *Family Coordinator* 28, 481-488.
- 22) Rettig, K.D., & Metzger, N.M.(1986). "Fathers' involvement in household activit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95-207.
- 23) Yogev, S., & Brett, J.(1985). "Perception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and child ca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609-618.
- 24) Zick, C.D., & McCullough, J.M.(1991). Trends in married couples' time : Evidence from 1977-78 to 1987-88. *Sex Roles* 24, 459-487.